**제목 : 악몽의 실마리**

**<잠에서 깨어난 엘리스>**

엘리스 : 이번에도 깨어나보니 밤이야..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잠을 조절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..

엘리스 : 꿈에서 아빠가 나왔었어.. 뭔가 더 물어볼게 있었는데.. 어쨌든 이제는 내가 예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.

엘리스 : 이 화재 감식 보고서도 그렇고 분명히 엄마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. 엄마한테 가서 이번엔 꼭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야 말겠어!

**<엘리스 방안>**

아저씨 인형 : 이건 아빠친구인 공장 사장님이 크게 투자를 한 신상품이라며 나한테 선물해줬던 인형이야.

뱀 인형 : 이건 할머니가 초등학교 입학기념으로 나한테 선물해 줬던 뱀 인형이야.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기분 나쁘게 꿈틀대는 것처럼 느껴져... 기분 탓일까?

곰 인형 : 어제도 꿈에 곰 인형이 나와서 날 도와줬어... 그런데 뺨이 왜 이렇게 탄 자국이 있지?

토끼 인형 : 토끼 인형도 어제 꿈에 나왔었어. 이것도 역시 가슴에 탄 흔적이 보여.

여우 인형 : 여우도 마찬가지야. 허벅지 부분에 탄 자국이 있어.

**<문열고 나가서>**

엘리스 : 오늘은 많이 더워.. 무슨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. 날씨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지?

**<엄마와 대화>**

엘리스 : 엄마, 언제부터 깨어있었어?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방에 왔었지?

엄마 : 우리 엘레스니? 발걸음 소리는 우리 엘리스가 분명히 맞는데 엘리스의 손은 이렇게 뜨겁지 않아..

엘리스 : 무슨 소릴 하는 거야!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. 이번에는 아빠가 꿈에 나왔어. 이 화재감식보고서는 무슨 의미야?

아빠가 복수를 얘기했어. 누가 아빠 가게에 불을 지른 거야? 나한테는 사고로 불이 난 거라고 했잖아!

엄마 : 엘리스야 진정하렴. 네 아빠는 2년전에 폭발사고로 돌아가셨잖니.. 난 네 방에 간 적도 없어..

그런데 아까 전에 내 침대 옆에 네 할머니가 찾아왔단다! 할머니가 그러는데 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구나.

엘리스 : 엄마.. 할머니는 3년전에 죽었잖아.. 내 질문에는 대답도 안하고 나도 더 이상 듣기 싫어, 난 갈 거야!

엄마 : 이런.. 많이 화났니? 엘리스야 미안하구나.. 사실 네 할머니도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겨 버렸단다...

할머니의 영혼이 오늘 우리 집에 왔는데 엘리스야.. 조심해야 해.. 사실은 악마로 변한 네 할머니가 네 영혼도 노리고 있단다.

엘리스 :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엄마가 정말 싫어졌어! 이 집을 나가버릴 거야!

엄마 : 그래.. 어서 나가렴.. 난 다시 누워야겠구나... 잘자렴..

[엄마가 잠에 듬]

다시 엄마와 대화하면

엄마 : ... (엄마는 잠이 드셨다.)

**<방을 나와서>**

엘리스 : 도대체 죽은 할머니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... 이 집을 나가야겠어.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..

엘리스 :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립지.. 이제 그만 잠을 자러 가야겠어.

**<보스전>**

제목 : 거짓된 종말(빨간색 글자)

삽화1 : 엘리스의 할머니는 귀족집안의 혈통이었지만 평민이었던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.

삽화2 : 그래서 살림살이는 넉넉지 않았지만 늘 기품 있게 행동했고, 결혼하기 전 집에서 가지고 온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을 하며 자신의 명예를 지켜나갔다.

삽화3 : 하지만 경제적으로 점차 힘들어지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진짜 보석들을 몰래 하나씩 팔았고 그 자리를 가짜 보석들로 채워나갔다.

삽화4 :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고 나서야 할머니는 우연히 딸에게 줄 보석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석들이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.

삽화5 : 그녀는 남편과 가족에게 큰 회의를 느끼고 그들과 멀어졌으며 그 후로 벌어졌던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벌어진 비극도 철저히 외면했다.

삽화6 : 그리고 자신은 가짜 보석들로 치장하며 과시를 했고 그것을 본 엘리스의 삼촌들이 할머니에게 보석을 나누어 달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내쫓아 버린다.

삽화7 : 하지만 보석이 가짜인 줄 모르고 보석에 탐이 난 삼촌들은 할머니 집에 불을 질러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보석을 훔치려 했다.

삽화8 : 하지만 할머니는 보석에 대한 집착으로 끝까지 집에 남아있다 불에 타 죽고 말았고 엘리스는 이 소식을 듣고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.

**<보스전 전투>**

엘리스 : 여긴 어디지? 너무 뜨거워...

엘리스 : 또다시 꿈 속으로 들어왔어. 엄마 말대로 정말 악마가 있다면.. 악마는 누구지? 왜 날 노리는 거지?

네글렉트 : 아이구 우리 귀여운 손녀 엘리스.. 널 만나러 왔단다! 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...저건 대체 뭐야? 그런데 목소리는 많이 들어본 목소린데... 설마 할머니!?

네글렉트 : 엘리스야 할머니 뱃속에 값비싼 보석들이 잔뜩 있으니 어서 들어오렴 히히히...(빨간색 글자)

**<네글렉트 전투 대사>**

대사1 : 엘리스 이건 내가 널 삼키면 넌 모든 보석을 다 가질 수 있어! (빨간색 글자) x

대사2 : 엘리스 어서 피하거라! 이건 내가 아니란다. ok

대사3 : 엘리스 한번 물어보면 안되겠니? 나한테 물리고 나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거야. 히히히.. (빨간색 글자) x

대사4 : 엘리스야 내 몸에서 나온 보석을 석상에 끼워서 나를 공격하렴. ok

대사5 : 왜 자꾸 이 할머니를 피하는 거니? 다들 바랬던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니? 어서 이리로 와! (빨간색 글자)

대사6 : 넌 이미 실패했어! 내 손녀를 더 이상 건들지마! ok

대사7 : 내 뱃속에서 영원히 잠을 자게 될거야 엘리스! (빨간색 글자) x

**<전투 종료 후 >**

네글렉트 : 안돼!! 난 아직 엘리스를 삼키지 못했다고! 가장 비싼 보석이니까 삼켜야 해!(빨간색 글자)

할머니 (흰 그림자) : 이 노친네야.. 죽을 때 들고 갈수도 없는 부질 없는 재물에 뭘 그리 집착하는가.. 가족을 살피지 못한 내 죄도 크니 같이 손을 잡고 하늘로 가세나.. (하늘색 글자)

네글렉트 : 그럴 순 없어! 내 보석을 저 빛나는 엘리스를 놓고 갈 수는 없어!! (빨간색 글자)

할머니 (흰 그림자) : 이 못난 할머니를 용서해 다오 엘리스. 네 덕분에 이렇게 영혼이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.. 참말로 고맙다..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일에 왜 그렇게 집착했던지.. 넌 부디 이 할머니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거라.. 그럼 잘자렴.. (하늘색 글자)

네글렉트 : 할머니...? 할머니 맞죠?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요?

할머니 (흰 그림자) : ... 이제 3일 밤만 남았구나.. 3일만 잘 버티거라..

엘리스 : 할머니!!

**<보석 감정 보고서>**

보석 감정 보고서

보석 감정 의뢰인 : 안나 로스펠

귀하의 보석 감정 의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정결과를 통보 드립니다.

귀하가 감정을 의뢰한 모든 보석은 모조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만약 진품을 도난 당한 것이라면 신속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.

* 베리카 보석감정법인 -